

어등산 민자개발사업 재추진 되나

시민 의견 수렴 거쳐 7월 민간사업자 제공모 할 듯
서진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 법적 소송 변수

광주시가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기존 민자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초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법적 소송전에 휘말린 서진건설측이 아직까지 강력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어등산 관광단지를 조성할 민간사업자를 제공모할 방침이다. 시는 2005년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세운 뒤 3차례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협상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비롯한 민관합동개발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고민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기존 민자유치 방식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기존 사업 조건으로는 사업자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수익성을 더 보장하는 형태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사업성 강화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은 필수조건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민공청회를 열고 각계 단체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6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께 사업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며, 사업자 선정, 협약 체결, 토지 보상 등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에 유원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6년 첫 삽을 뜬 이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

올해 초에는 서진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벌였지만, 사업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끝에 사실상 무산됐다. 서진건설은 협상 결렬과 함께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위를 취소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했다.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게 서진건설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 계획대로 오는 7월께 사업자 제공모가 가능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광주기업으로 광주 시민의 숙원 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조만간 나올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재개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진건설은) 이미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만큼 다른 사업자를 찾는 제공모 절차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서진건설 소송과 관련해) 이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소송과는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섬주민 교통 편의 흑산공항 건설 전력”

목포대 의과대학 반드시 유치
‘노인부’ 신설 법개정 앞장
초심 잃지 않는 정치인 될 것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60)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당선인은 24일 “신안 흑산공항 건설과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 당선인은 21대 국회 등원을 앞두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흑산지역 도서민 교통편의 개선과 전남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흑산공항 건설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당선인은 또 “목포대 의대 유치·대학병원 신설의 경우 전국 광역단체에서 유일하게 전남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히, 조기에 유치돼야 한다”며 “도서 지역을 포함한 전남 서남권의 열악한 공공의료 기능을 고려하면 더더욱 서남권에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포대 의대 유치는 민주당에서도 공공의료 인력과 의료기관 확충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데다 교육부의 용역 결과도 긍정적이어서 지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 당선인은 이와 함께 우선 풀어가야 할 지역 현안으로 무안공항 경우 KTX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완공, 영암 대불산단 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흑산공항 건설과 함께 이들 사업은 그동안 낙후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대부분 정부의 예산확보와 연계되는 사업인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하여 제정을

추진할 법안으로는 가장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과 ‘노인부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들었다. 서 당선인은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는 법과 제도를 고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불편함을 덜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농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한 가장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수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천일염 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해 생계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최소한의 소득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재확인했다.

서 당선인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질병이 앞으로는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측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인수(人獸)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가칭 ‘방역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측에 촉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 등 4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여 16건을 통과시켰다”며 “아쉽게도 20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들은 다시 재정비하여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당선인은 그러면서 “정치에서 절대 선(善)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듯이 양면성이 있다. 법률을 제정하면 수혜자가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절충해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내고 그렇지 않으면 차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당선인은 “저는 도의원, 민선 군수를 역임해 현장 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역 국회의원 역할의 중요함도 잘 알고 있다”며 “일할 기회를 주신 지역주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소금처럼 변함없이 초심 잊지 않고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민생당 이윤석 의원을 누르고 재선 국회의원에 올랐다. 제 5·6대 전남도의원, 민선 3·4·5기 무안군수, 20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 조선대부속고등학교, 조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에서 행정학 석사, NGO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5·18 영령 진혼문화제
지난 23일 오전 광주시 남구 효천역 광장에서 5·18 당시 송암동과 효천역 일대에서 희생당한 시민들을 위한 진혼문화제가 열렸다. /남구청 제공

영광군 수협, 해수부 ‘저온경매장 시설’ 공모 선정

광주시 새 대변인에 김이강 특보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43억원 규모의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에 전남도가 최종 선정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은 저온경매장 시설과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2대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4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영조 전남도 수산유통과공과장은 “국민들이 전남 수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수산물이 거래되는 첫 장소인 산지위판장에 대한 저온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는 “개발형 직위로 공모한 신임 대변인(4급)에 김이강(49·사진) 현 정무 특보를 25일자로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통상학과 과와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상경제대책단 상환 부실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대외협력 담당 등을 지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인공지능 연구기관 설립 착수

가칭 ‘데이터산업융합원’ 등
설립 방안 연구용역 보고회

광주시가 인공지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과학기술원과 연구기관 설립 방안 연구 용역 계약을 하고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용역 과제는 2024년까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맞춰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 연구기관(가칭 데이터산업융합원), 사이버보안 연구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마련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데이터산업융합원은 연구개발(R&D) 사업과 비 연구개발 사업을 연결해 인공

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이버보안 연구 전문 기관은 집적단지에 설립될 예정인 인공지능 특화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착수 보고회에서 연구 범위, 방법, 세부 내용,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용역 시작을 알렸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 3월 인공지능 대학원을 개설하고 스타트업육성하는 등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